

'95 미술의 해

내실 다지며 영역확대 발판 구축

불미협등 대형 세미나 계획 ... 개인·그룹전 활기 기대

불교미술계 어떤 준비하나

미술의 해를 맞아 불교미술계가 신년벽두부터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부가 정한 「미술의 해」를 관 주도 행사로만 지켜 볼 것이 아니라 불교 미술의 영역확대와 질적 성장을 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불교미술계의 의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불교미술인협회와 한국 불교미술협회, 동국불교미술인회는 이미 미술의 해를 맞아 불교미술관련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새 단체의 공동세미나는 불교미술의 저변확대와 내적 발전방향을 모색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계자들의 예기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미술사학과 평론계의 인사와 현재 활동 중인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세미나를 마련한다

는 기본 방략이라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불교미술의 전통계승과 현대화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깊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세미나의 폭이 상당히 넓을 것을 시사했다. 준비위는 봄에 열릴 이 세미나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단체에 의한 행사 외에 작가들의 개인전도 어느때보다 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 입장에서는 지난해 불과 가을에 50여회의 불교관련 전시회가 개최된 점을 주목, 오히려 미술의 해에 불교미술계의 개인전은 적을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불교미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고 젊은층의 의욕이 높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일반 미술계의 상승되는 분위기 만큼이나 불교미술 작품전도 활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사동 화랑가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화랑이 대관계약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불교관련 전시 계획도 많이 포함됐다는 것이 화랑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한국불교미술인협회의 경우 지난해 가을에 창립전을 가졌으나 올해는 초파일을 전후해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각 분야 회원 70여명 대개가 작품을 내놓는 대규모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동국불교미술인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경주의 동국 불교미술작가협회등 단체들도 대규모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불교미술인들에게 취약점으로 지적해 온 소그룹전도 금년에는 활발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과 경주, 부산, 광주등에는 활동이 중지된 소그룹들이 각각 2~4개씩 있으며 이 그룹에 소속된 작가

들은 미술의 해를 그룹 재기의 기회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또한 한국불교미술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영화교수는 미국, 일본등지에서 초대전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몇몇 중견 작가들도 불교미술의 해의 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불교미술계의 해의 나들이 바람도 신선하게 불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각가 진철문씨는 「미술의 해에 불교미술계의 커다란 변화가 오길 바란다」며 「한국 미술의 압권인 불교미술이 종교라는 영역 속에 파묻혀 가는 현실을 과감히 탈피하고 한국과 동양의 미술사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미술의 해는 불교 미술계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계룡산 소림원에서 발견된 김복진씨의 유일한 유작 미륵불상.

한국 근대조각의 선구자 김복진(1901-1940)의 유작이 발견됐다. 최근 미술평론가 윤범모(한국근대미술사학회장)씨는 충남 공주군 계룡면 양하리에 소

김복진 유작 '미륵상' 처음 발견

윤범모씨, 공주 소림원서

재한 소림원(少林院)에서 불신(佛身) 높이 1미터의 김복진 유작 불상을 확인했다. 김제 금산사의 대불(大佛)의 모형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1936년 김복진의 조선미전 입선작과도 흡사한 것으로 당시 제작했던 모형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림원 주지 봉래스님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불상은 봉래스님의 스승인 원호스님이 일제 때 직접 봉안한 것으로 당시 불상 재료로 사용되지 않은 쇠고로 제작된 점이 주목을 끈다. 한국인 최초로 근대조각 교

육을 받고 1920, 30년대 조각 활동과 함께 제자를 길러내 한국 조각의 정초를 세운 김복진은 조선미전 출품작 나체승자(1925), 불상승자(1936)를 비롯 최소한 40여점의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단 한점의 작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복진은 1920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 본격적인 근대조각가로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면서 금산사, 법주사 등의 불상제작을 맡는 인연을 쌓기도 했다. <도필선 기자>

미술의 해에 바란다

미술의 해를 맞이하여 갖가지 행사들이 개최될 전망이다. 국제적인 미술대전과 함께 국내외 각종 미술전들이 기획되어 있고,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기획기사들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역대 미술인들을 월별로 선정하는 등 각종 행사들을 주관 또는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명대 <동국대 교수>

제도적 발전도대 필요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내가 과연 타인지 몰라도 눈에 띄는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다만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연구소와 한국불교미술협회가 공동으로 미술의 해를 기념으로 한 불교미술전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아울러 현대불교미술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정도가 뚜렷한 계획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불교신문에서 불교미술특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충무위 단위의 행사가 기획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까. 오랜 숙원이던 문화사회부(文化社會部)가 신설되어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미술의 해에 어떤 구상을 기획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문화사회부에서는 불교미술전이나 단기간 미술정책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문제

다. 매년 형식적인 전시회를 개최한다해서 현대미술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도 아니며, 인재가 발굴되는 것도 아니고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철저한 교육과 교육된 인재들의 활동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

불교미술 활성화 정책 세우자

들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과제를 제시하고 해답을 구하도록 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한다. 현대불교 미술정책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종단의 장·단기정책을 확고히 정립하는 일이다. 정책을 개발하는 소위원회가 있고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사원의 제도와 양식을 원리적으로 제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의양안 보아도 불교사원이라는 것을 선뜻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징물을 정해야 하고 내부공간도 독특한 불교식에 현대성도 가미하는 제도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유명무실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위원회는 교계의 중심으로 구성하여 서로 토론을 거쳐 종단의 기본정책이 정해지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위원회는 분야별로 두되 서로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짜야 할 뿐더러 위원도 엄선해 선정해야 할 것이다.

보다도 이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시회등을 개최하여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발전하도록 할 때 비로소 참다운 현대불교미술이 정착될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방치할 경우 무불교성(無佛敎性)·무국적(無國籍)·무아름다움(無美意識)이 판치는 치졸한 작품들만 전시장에 가득할 것이다. 이른바 세계 어디 내놓아도 뛰어난 국제적·세련미를 갖춘 한국의 불교미술이 창조되는 기틀이 가필코 마련되었으면 한다.

정보관리의 대계 세워야

끝으로 새해에는 종단의 문화재(聖寶文化財) 보존 보수방안의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거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 이른바 성보(聖寶)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를 보존하고 보수하는 전담기구가 전무할 뿐더러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 하나 구성되어 있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외지만 있어도 되는 쉬운 일조차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이제 문화사회부가 신설되었으므로 기대해도 좋을 터지 모르겠다. 이 역시 하루빨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본 정책이 수립, 정부에 입안하는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도둑맞고 파손되고 숨기는 소극적 미봉책에서 불교신앙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재 양성·활용하자

둘째 현대불교미술의 활성화 방안이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교미술대전이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도 현대불교미술의 방향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원회에서 현대미술의 이념·정의·방향등 기본원칙을 정해야 하며, 인재양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미술의 해 조직위 연간 사업계획

기획전·특별행사 다채 ... 전국서 157건

우표 발행·해방 50주년 관련 축제도

「'95 미술의 해」 사업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157건에 걸쳐 다양하게 준비된 사업들은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대원 예술위원회장)가 수립하고 집행위원회(위원장 박광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에 의해 추진된다. 「미술의 해」 관련 사업은 중앙에서 학술사업 4개 행사, 미술관계법과 제도개정 및 개정사업 3개 행사, 이벤트사업 9개 행사, 전시사업 16개 행사 등 32건이다. 또 충청남북도 21개 행사, 광주직할시 전라남북도 12개 행사, 부산직할시 대전직할시 4개 행사 등 지역에서 126개, 모두 157건의 사업이 펼쳐진다. 이 행사들은 1월16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의 선포식에 이어 차례대로 전개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선포식 이후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분야의 근현대 작고작가중 12인을 선정 작품세계를 재조명한 영화를 상영한다.

이외 2월28일부터 3일간 진행될 「미술의 해」 개막행사는 천안삼거리공원, 병천아우내장터, 병천산성공원, 류관순열사공장에서 광복 50주년 및 3·1 정신 계승을 위한 미술행복 대제전이 개최된다. 전시사업으로는 한국 현대미술의 현수소를 보여줄 「한국미술 30년전」 '오늘의 한국미술 전'이 7월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11월 파리시립미술관에서 각각 초대전 형식으로 열린다. 조직위는 이들 전시회를 계기로 각국에 거주하는 한인 쪽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하는 동시에 한민족의 슬기와 지혜가 담긴 문화적 얼을 펼쳐 보여줬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또 이대리 베니스날에 한국관 개관기념 「이대리 현대미술전」을 11월중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갖고, 문예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중 수묵화교류전」이 5월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서문관과 미술제」가 3월~4월 예술의 전당에 기획된다.

이밖에도 3~4월 '올해의 작가전' 7월 '한국미술의 모습전' 8월 '전국위호대회' 7~8월 '자코메티 작품전' 8~9월 '한국미술 95' 9월 '전국화랑 미술제'와 '작은 그림전'이, 10월에는 '전국 공예품 디자인 개발전시 및 워크샵' 등 미술계 전반에 걸친 문화행사가 열린다. 이상 32건의 전시행사는 미술의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한발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계자들의 예기다. 학술행사는 4·10월 2차례에 걸친 '미술의 해 세미나'와 8월 '미술강연회' 12월 '국제심포지엄'을 계획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전개될 '미술책자 발간' 또한 10월에 추진된다. 조직위는 특히 「미술의 해」를 뜻깊고 오래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 11건의 이벤트사업도 수립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은 미술의 해 기념우표 발행이다. 미술의 해 로고와 월별작가의 작품을 우표화할 것으로 체신부와 협의중

에 있다. 이외에도 미술정보센타 설립, 영상아트 국토미화계획, 유명미술인과 캐논디자이너의 연계패션쇼 등 이벤트사업도 펼쳐진다. 이대원 조직위원장은 「한국 미술의 독자성과 전통성을 살려 민족적사업으로 전개해 나

1995 새해 아침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 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宋月珠, 부회장 대한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朴瑞峰, 부회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田雲德, 부회장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원장 崔智光, 사무총장 대한불교 판문종 총무원장 李泓波, 이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金大虎, 이사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薛大雲, 이사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金法隱, 이사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金慧定, 이사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鄭慧日, 이사 대한불교 진언종 총무원장 李泰玉, 이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金光泰, 이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鄭法輪, 이사 대한불교 화엄종 의장 鄭熙秀, 이사 대한불교 융화종 총무원장 李法德, 이사 대한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李明谷, 이사 대한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鄭一華. 이 사 불 교 총 지 중 통 리 원 장 安 曉 岡, 이 사 대한불교 원 응 중 총 무 원 장 裴 一 空, 이 사 대한불교 본 원 중 총 무 원 장 李 大 和, 이 사 대한불교 삼 론 중 총 무 원 장 尹 智 明, 이 사 대한불교 조 동 중 총 무 원 장 金 法 佑, 이 사 대한불교 여 대 중 총 무 원 장 金 法 佑, 이 사 대한불교 미 타 중 총 무 원 장 辛 勉 官, 이 사 대한불교 열 반 중 총 무 원 장 金 海 谷, 이 사 대한불교 대 승 중 총 무 원 장 鄭 法 勝, 이 사 대한불교 일 봉 선 고 중 총 무 원 장 玄 鵬 海, 이 사 보 국 불 교 열 불 중 총 무 원 장 李 晴 峰, 이 사 대한불교 정 도 중 총 무 원 장 尹 玉.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4층 대표전화:(02)732-4885, FAX:(02)737-7872.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철웅 본·말사 대종일동 충남 공주군 사곡면 운암리 567 ☎ (0416)841-6221.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조실 관응 회주 녹원 본·말사 대종일동 경북 금릉군 대항면 운수동 216 ☎ (0547)436-6174.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조실 진제 회주 무공 본·말사 대종일동 대구시 동구 도학동 35 ☎ (053)982-0101.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운경 회주 월운 본·말사 대종일동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 (0346)68-1951.